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9월 1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겠습니다.”

- 최길임 -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은혜와진리교회 남양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권사입니다. 지나온 제 인생의 고비마다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눈물과 한숨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35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주의 성전을 지키며 주를 섬기게 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가족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경기도 안산의 한 지역으로 이사를 온 때가 1979년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마땅하고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저희 가족의 생활이 궁핍하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집의 큰방에 세 들어 사는 교회 권사님의 방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송 소리에 제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노래 부르며 살게 되는가 보다.’ 부럽고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의 은혜에 이끌려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때는 안산에 은혜와진리교회의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이어서, 주일이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의 캄캄한 밤길을 걸어 버스를 타고 안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손을 굳게 붙잡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안양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 고단한 삶 가운데 유일한 기쁨이 되고 안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때 현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다. 남편의 직장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아이들 끼니조차 거를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점집의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저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즉시 발길을 돌리고 눈물을 펄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나 사나 저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꼬였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식당에서 12년을 일하면서, 교회에서 구역장 직분을 받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주일에 회사의 야유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지만 저는 기꺼이 벌금을 내고 교회에 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는 날에는 식당일을 서둘러 마치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달려가 참석할 만큼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중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보며 남편의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문을 잠가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예사였고 여러 가지 모진 구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덤프트럭을 사서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험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낼까 염려한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트럭을 사서 일하는 것에 동의해 줄 터이니, 대신 나와 함께 교회에 가요”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동네 사람들이 내다보는 앞에서 저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거친 언행과 이웃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저의 허물이며 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그토록 핍박하던 남편이 동네에서 그 난리를 치른지 3일 만에 스스로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30년 넘게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고, 나아가 집사 직분까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억울한 일에 휘말려 곤경에 처했을 때, 저는 골방에서 엎드린 채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도와주셔서 일주일 만에 아들이 무사히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던 고마운 딸이 코로나 감염병이 유행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주님과 멀어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딸이 다리 수술을 계기로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심방을 받고는 돌이켜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제삿날에 딸과 사위가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로 제사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감격하였고, 제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을 마침내 열매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년이 넘도록 연락을 주고받지 못해 제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던 둘째 며느리와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길에 있던 큰 바윗돌에 그만 정강이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여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였지만, 평소 주중예배에서 조명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듬뿍 받고 있었기에 그 아픔을 꺾 참고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병원에 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찌나 은혜스럽던지, 여러 번 울컥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실 때 아픈 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기도를 받는데, 놀랍게도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이내 가벼워지더니 다리의 통증이 씻은듯이 사라졌습니다.

매주 꼬박꼬박 드리는 주일과 주중 예배 때마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과 부당회장 조명제 목사님께서 어찌 그리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설교 중에 저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그 신령한 양식으로 저의 영혼을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구역장 시절에 저는 이런 꿈을 꾸 적이 있습니다. 끝없이 양 옆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환하고 눈부신 길, 그 길은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주신 ‘천국 길’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길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생생하여, 앞으로 인생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천국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 할렐루야!

너무 가난해서 6년 동안이나 친정에 가지 못하던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주님 안에서 큰 욕심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명절에 70명에서 80명에 이르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하시며 주신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안분知足(安分知足) 하면서도, 계속 신앙생활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소망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역공과

제4권 (3단원 : 주님을 모신 가정)

(제15과) 부부가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

- 본문 : 에베소서 5:22-33
- 요절 :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33)
- 찬송 : 436장(새찬송가 567장), 442장(새찬송가 569장)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부부로 맺어주셔서 이 땅에 최초의 가정을 탄생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라고 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친밀하였나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자 원만하던 가정의 질서가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물으시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아내인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타락 전에 몸과 마음이 하나이던 부부 관계가 서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금이 간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람직한 부부 관계를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에서 우리나서는 자발적인 복종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은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단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적지 않은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 금이 가는 까닭은 아내가 남편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지아비로서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관습상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창 3:16).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평생 주(主)라 칭하며 그의 의견에 복종하였습니다(창 18:12, 벰전 3:6). 그러므로 아내된 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벰전 3:3,4)라고 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과 신뢰로써 남편을 경외하고 만드는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1.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게 된 동기에 대하여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아담은 홀로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하와를 아내로 맞이한 후로는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되어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부가 한평생 해로하면서 함께 가정을 경영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나를 막론하고 남편과 아내는 늘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온전히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만한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편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력해 나갈 때라야 가능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의 위치를 지킴으로 행복한 가정을 경영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2.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엡 5:22,23)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진심

3.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성경은 남편된 자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25)고 권면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러한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 가운데는 유교적인 전통에 근거한 가부장적 권위를 주장하여 아내를 마치 남편의 부속품이나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남편들 중에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성경 구절을 빙자하여 아내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9)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남편은 머리로서 한 가정을 대표하며 이끌어가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내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가꾸어 나간다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된 자는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엡 5:28)고 하신 말씀처럼, 한평생 곁에서 동고동락하는 아내를 제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본분을 지켜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즉 주님 안에서 남편은 온전히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여야 우리의 가정은 바람직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민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대리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경기도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경기도 의왕시 내소로 70-9 (내소동) T.031-422-9200
- 전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늘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